

## [제작 문제]

(수특 p.143 금전 소비 대차계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한다. 이 특정 물건을 목적물이라고 하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한다. 차주가 대주의 소유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민법상 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대주는 빌려준 물건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차주는 대주에게 물건을 갚을 채무를 가진다. 민법상 대차계약은 목적물이 사용에 의해 소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된다.

가령, 갑이 을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대차계약을 맺는다고 하자. 이때 휴대전화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이 휴대전화는 사용된 적이 없는 또 다른 휴대전화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동질, 동종의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대차계약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부른다. 돈은 대체물의 일종인데, 목적물이 돈인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차주가 대주에게 목적물인 빌린 돈을 갚는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한편, 갑이 을에게 빌려주는 휴대전화가 갑이 쓰던 휴대전화라면 이 휴대전화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물이다. 이렇게 비대체물로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대차계약은 대가의 유무에 따라 사용대차와 임대차로 구분된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인간의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간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자가 약정된 경우에도 그 비율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간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대주는 차주에게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차주는 채무를 이행할 때 목적물의 변제 금액, 이자 금액, 추가 비용을 합친 금액을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병은 정에게 2024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3일까지 1억원을 빌려주었다. 이때 이자는 연간 8%로 약정되었고,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정은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잊고 있다가 2028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았다. 이때, 병과정이 사전에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했다면 병은 정에게 약정된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지연된 기간만큼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1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병의 고의나 과실로 변제가 늦어진 경우에는 정은 추가적

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이 2026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정은 병에게 이자로 1600만원이 아닌 24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갚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른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정은 병에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병에게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 1. 원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부른다.
- ② 민법상 대차계약은 목적물이 소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③ 목적물이 비대체물인 계약은 대가의 유무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 ④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일 수 있다.
- ⑤ 목적물이 돈이 아니어도 소비 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 2.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이자가 약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비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 ③ 차주는 목적물이나 이자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은 대주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차주는 변제 기한보다 돈을 일찍 갚는다면 정해진 기한에 따른 이자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해도 된다.
- ⑤ 원금의 변제가 지연되더라도 차주가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병에게 변제를 재촉받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정은 2027년 1월 23일까지 병에게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돈을 갚는 과정에서 정의 과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④ 병이 정해진 기한에 따른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 ⑤ 정은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병이 가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는 B와 2024년 1월 1일에 2029년 1월 1일을 기  
한으로 하는 금전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에  
게 1억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를 약정하였지만 이자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① B가 A에게 2029년 1월 1일에 돈을 갚는다면 B는 A에  
게 1억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② B가 변제일을 착각하여 2030년 1월 1일에 돈을 갚고,  
지연손해금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B는 A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③ B가 변제일을 착각하여 2030년 1월 1일에 돈을 갚고,  
지연손해금율이 10%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B는 A에게 1억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④ A의 과실로 B가 2030년 1월 1일에 돈을 갚고, 지연손  
해금율이 10%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B는 A에게 1000만원  
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⑤ B가 A에게 2027년 1월 1일에 돈을 갚더라도 B는 A에  
게 1억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제작 문제\_해설]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대가의 유무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 계약은 목적물이 대체물인 계약이 아닌, 목적물이 비대체물인 계약이다. 목적물이 대체물인 계약은 소비 대차계약이다.

[오답 피하기]

- ①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부른다.
- ②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민법상 대차계약은 목적물이 소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비 대차, 임대차, 사용 대차 계약으로 구분된다.
- ④ 2문단의 예시에서 갑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대가를 약정했다면 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일 수 있다.
- ⑤ 금전 소비 대차계약은 대체물이 돈인 경우인 특수한 경우의 계약이다. 대체물이 꼭 돈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목적물이 돈이 아니어도 소비 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 2.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⑤

원금의 변제가 지연되더라도, 그 원인이 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있다면 차주는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인끼리의 금전 대차에서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이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차주는 대주에게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③ 차주는 목적물이나 이자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 역시 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④ 차주는 변제 기한보다 돈을 일찍 갚더라도 정해진 기한에 따른 이자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대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주어진 지문의 주변 맥락을 파악해볼 때, ㉠의 이유는 차주가 대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맥락을 담고

있는 선지는 4번 뿐이다.

[오답 피하기]

(해설 생략)

###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A의 과실로 B가 돈을 늦게 갚은 경우에는, B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채무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B는 A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B가 A에게 2029년 1월 1일에 돈을 갚는다면 B는 A에게 원금인 1억과 함께 매년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급해야하는 총금액은 1억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② B가 변제일을 착각하여 2030년 1월 1일에 돈을 갚고, 지연손해금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B는 A에게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B는 A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③ B가 변제일을 착각하여 2030년 1월 1일에 돈을 갚고, 지연손해금율이 10%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B는 A에게 1억 2500만원에 더해 1년치의 지연손해금인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⑤ B가 A에게 2027년 1월 1일에 돈을 갚더라도 B는 A에게 1억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B의 정해진 기간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을 권리 때문이다.